




조이현 고등학교 1학년

2024년 6월 21일 금요일

날씨 맑음 

결코 당연하지 않은 것들

학교 친구들, 선생님과 경상북도 상주로 3박 4일간 봉사 활동을 다녀 왔다. 이곳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여 귀한 배움을 많이 얻었다.

첫째 날에는 마을 주변에서 플로깅 활동을 했다. 우리는 마을 구구곡을 걸으며 쓰레기를 주웠다. 처음엔 농촌 마을이라 쓰레기가 별로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의외로 많은 쓰레기들이 곳곳에 버려져 있었다. 특히 플라스틱 병이나 비닐봉지 같은 것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버려진 쓰레기가 농촌 마을 자연 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것이 마음 아팠다.

둘째 날에는 오전 6시부터 농사 일을 시작했다. 콩 씨를 심고, 감자를 개고, 오이를 따고, 흙을 고르게 하고, 사인어스켓 가지치기를 했다. 시소한 과정 하나하나가 생각보다 힘들었다. 봉사 짓는 분들의 흘리는 땀이 얼마나 많은지, 그 땀방울들이 결국 우리가 먹는 음식의 원천임을 깨달았다. 평소에 식탁 위에 올라온 채소들을 별 생각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먹었지만, 앞으로는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작은 씨앗 하나가 싹을 틔우고, 자라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쏟아 부어지는지 몸소 배우는 시간이었다.

셋째 날에는 우리가 수확한 채소들로 직접 식사를 즐겼다. 미꾸라지 짜장밥이었음에도 신선한 채소로 만든 짜장밥은 그 어느 때보다 맛있었고, 내가 직접 농사해 얻은 수확물로 만들었기에 더욱 의미 있게 다가왔다. 음식을 나눠서 만들어 마을 어르신들에게 대접도 해주었다. 어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농부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함을 같이 느끼고 농사와 봉사의 보람도 느꼈다. 맛있는 음식을 주는 고이음 자연의 허락을 오래 누리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보았다.

이번 봉사 활동은 도시에 사는 청년인 내가 농촌의 삶을 직접 체험해보며 농부들의 노고를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었다. 그리고 평소 당연하게 여겼던 여러 가지들이 결코 당연하지 않은 것임을 느끼게 해주었다. 오늘도 나에게 귀한 채소와 알뜰한 우리 집 식탁으로 보내준 자연과 농부들에게 깊은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전해보고 싶다.



대상

조이현 고등학교 1학년





조이현 고등학교 1학년

2024년 7월 7일 일요일

날씨 장마비 내리는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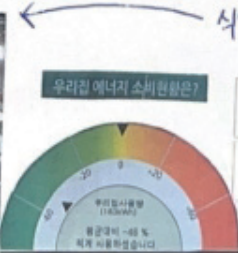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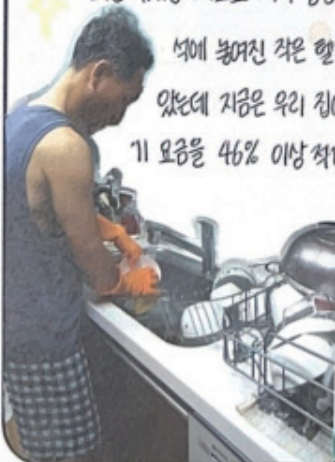
세탁 건조기 논쟁

오늘 우리집에서 작은 소동이 내렸다. 영아아버가 건조기를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두고 충돌하셨기 때문이다. 빨래 담당이신 아버지는 요즘 빨래에서 나는 여름철 쉰내 때문에 고민이시다. 식초를 넣어보고, 섬유린스를 넣어 봐도 빨래에서는 여전히 짙은 냄새가 난다. 말리는 동안 빨래에 선풍기 바람을 쐬어도 습도가 매우 높은 날에는 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아버지는 요즘 인기가 많은 세탁 건조기를 사자고 건의하셨다.

그런 아버 의견에 영아가 반대하셨다. 영아는 가정에서 세탁 건조기를 사용하면 안된다고 하셨다. 세탁 건조기는 나 자신의 쾌적함을 위해 지구 전체를 병들게 만드는 이기적 도구라고 하셨다. 너도 나도 그런 편리함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어 지구가 이 지점이라고 하셨다. 찰찔 끓어오르며 아파하는 지구 생각한다면 '빨래줄'이 정답이라고 하셨다.

아버지는 이에 대꾸하셨다. 기후 변화로 인해 여름에 세탁 건조기 없이 사는 건 무척 힘든 일이 되었다고 옷에서 냄새가 나면 사회 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요즘 세탁 건조기 없는 집이 없다고. 요즘 가전은 에너지 효율이 무척 높아 지구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우리 가족만 이룬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고.

우리 영아는 나와 내 동생을 천 기저귀로 키우신 분이시다. 철저히 행복러를 이용하시는데, 어쩌다 행복러를 광박하고 외출하면 물을 그냥 안 드신다. 우리집에서 알코올 린타슈 같은 건 구입할 수가 없다. 식기 세척기, 로봇 청소기, 정수기, 감지 냉장고 같은 7년 제품은 당연히 없다. 난 초등학생 때까지 에어컨 없는 집에서 살았다. 영아가 행복하고 에어컨을 산 것은 4년 전이다. 그렇지만 웬만해서 들지 않는다. 영아는 매일 유기농 재료로 채워 중성의 집밥을 하시고, 아버지는 손수 닭거지를 하고 넓은 창고로 청소를 하신다. 구석에 놓여진 작은 할레비전은 언제 켜졌는지 기억도 안 난다. 어릴 때는 다른 집들도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은 우리 집이 남다른 집인 것을 알고 있다. 관리비 명세서를 보면 우리 집이 다른 집보다 전기 요금을 46% 이상 적게 사용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 식기 세척기 없이 닭거지하시는 아버.

동백역한라비발디
관리비명세서

← 다른 집들에 비해 전력을 46% 적게 쓰고 있는 우리집



대상

조이현 고등학교 1학년



나는 이런 특별한 엄마를 둔 덕분에 잔모리를 먹고 무척우럭 자랐다. 불고기, 물 아메기, 플레인 빵기, 불필요한 소비 자제, 배달 음식 금지, 물건 아껴 쓰기, 분리수거 철저 응등등. 이런 가정 환경이 어린 나에게 여러 가지 불만을 유발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어른이 되었지만 자연스런 습관이 되었고 이런 일기를 쓰고 있는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이 온전히 사랑스럽다.

오늘의 건조기 반응은 우리 엄마의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우리 아빠도 만만치 않은 철약맨이었는데, 여름 빨래의 냄새 때문에 깊은 고민을 하셨나 보다. 건조기 있는 집이 부러웠나 보다. 아빠의 말처럼 우리 가족의 작은 노력이 자를 살리는 데 여백족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가족같은 저수 파수권이 분명히 여기 저기서 온전히 활약하고 있을 거라 믿는다. 그 작은 힘들이 모여 여름밤의 시원한 바람을 되찾는 날이 올 거라 믿는다. 그리하여 우리 집 빨래가 건조기 없이도 향긋하게 마르는 여름을 맞이하면 참 좋겠다.



나의 아끼질을 책임진 천기저귀



아빠가 온유 넘어놓으신 빨래





조이현 고등학교 1학년

2024년 7월 19일 금요일

날씨 덥고 습함



13일간 지구와 친구로 지내다

13일간의 '사이다' 국토종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사이총배' · '인루자' · '다같이' 라는 목표 아래 28명의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 해안길을 따라 걷는 활동이었다. 이 무대위 속에 무려 13일간 15kg이나 되는 배낭을 메고 매일 긴 거리를 걸어야 하는 도보 여행이었다. 지친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 혹독한 과정을 거치며 나의 체력이 놀랍도록 향상되었다. 또 조깅으로 활동하며 리더십도 길렀다. 끝으로 한가지 더, 나는 '사이다'를 통해 평소보다 적극적인 환경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다.

첫째, 전기 절약이다. 사이다에서는 전기의 도움을 거의 받지 않고 생활했다. 직접 핸드를 가지고 다니며 자연 속에서 강을 잤다. 전기 랜턴 하나, 조명 하나 없이 터우면 터우대도, 이두우면 이두우대로 생활했다. 드라이기 없이 수건으로 머리를 말았다. 핸드폰 사용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 13일간 꽤나 많은 전기를 절약한 셈이다. 특별히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연의 리듬에 순응하며 원시적 삶을 체험하고 전기 에너지 제로 생활을 해본 것이다.

둘째, 물 절약이다. 나는 평소에 집에서 샤워를 15분 정도 한다 하지만 사이다에서는 아직 씻지 못한 친구들의 재촉을 들으며 4분 안으로 샤워를 마쳐야 했다. 13일간 매일 15분씩 샤워를 하면 195분이지만, 4분씩 샤워를 하면 52분이다. 사이다 국토종주 동안 나는 143분, 즉 무려 23분만큼 샤워 시간을 단축한 것이다. 15분간 샤워할 때 약 180리터의 물이 사용된다고 한다. 계산을 해 보니 1716리터의 물을 절약한 것이다.

셋째, 자동차 없는 생활을 했다. 하루에 적게는 6km, 많게는 32km를 걸었다. 동해에서 강릉, 속초를 거쳐 과천까지 걸었다. 사이다 기간 동안 대략 1601km를 걸었는데, 자동차를 이용했다면 20kg 이상의 탄소 배출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1g의 탄소 배출도 하지 않고 튼튼한 두 다리로 느끼지만 참안하고 행복하게 지구를 탐험했다.

13일간 나는 지구와 절친으로 지냈다. 국토종주 내내 자연은 나에게 야망없는 사랑을 나누어 주었다. 그런 지구에게 한없이 고마움을 느꼈다. 많은 공기는 우리가 기운을 낼 수 있게 도와주는 귀중한 힘이였다. 내 몸 같은 지천 무리의 땅을 쉬어 주었다. 팽팽한 햇볕은 밤래를 보호하게 밀려





조이현 고등학교 1학년

주었다. 쉬면서 맛본 수박은 나를 친척으로 데려다 주었다.

시카고 극동공주의 박산 감동이 아직도 내 가슴속에 일렁이고 있다. 이 감동이 내 삶속에서 재촉가동해야
안한다. 그런데, 그런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산호가 나를 슬픈 상영으로 이끌은 한다. 긴엄으로 내
친구 자귀의 안정을 받고 싶어한다. 우선, 나의 작은 실천으로 친척에게 사랑을 전해 줄 거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구를 위해 내가 할수있는 일들을 고민해 볼 것이다. 조이현, 힘을 내자!

햇빛이 뜨거워도, 비가 내려도 걷는다.



13일간의 짐을 담은 가방



↳ 아무 곳에서도 풀쩍 누워서 휴식을 취한다.





조이현 고등학교 1학년

2024년 7월 20일 토요일

날씨 흐림, 비

유감스러운 삼계탕

신문에서 '전범선'이라는 작가가 쓴 칼럼 '삼계탕이 보양식인가?'(한겨레, 2024년 7월 19일)를 읽고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었다. 칼럼에서는 개도살 금지법이 통과된 이후 첫 보양식을 맞이한 한국에서, 개고기가 아닌 삼계탕이 보양식으로 자리 잡은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칼럼은 단순히 삼계탕을 먹지 말라는 주장이 아니었다. 동물을 대하는 윤리적 태도와 올바른 식습관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었다.

칼럼을 읽으면서 나의 위치를 자각하게 되었다. 평소에도 그저 맛있는 것만 먹고 싶었던 삼계탕이나 치킨이, 실로 엄청난 동물 학대의 소산임을 미처 몰랐다. 병원에서 닭들이 겪는 비참한 현장을 알게 되면서, 그동안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먹었던 음식들이 얼마나 비윤리적일 수 있는지 깨달았다.

칼럼에 나온 '자연스러운 것이 꼭 윤리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문장이 깊이 와 닿았다. 인간이 고기를 먹는 것은 오래된 전통이자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윤리적인 것은 아니라는 글쓴이의 생각에 공감한다. 자연스러운 본능을 넘어 윤리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인성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는 말에 동의한다.

칼럼에 닭의 사육 환경이 자세히 나와 있었다. 닭들은 빠르게 살찌우기 위해 24시간 복이 켜진 좁은 공간에서 키워지고 있다고 한다. 닭들이 각종 질병과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모습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무거워졌다. 글쓴이는 이런 환경에서 자란 닭들이 과연 나의 몸과 마음에 좋을 리가 있겠냐고 힘주어 묻고 있다. **2024년 7월 19일 금요일 한겨레**

삼계탕이 보양식인가



전범선
풀무질

이번 칼럼을 통해 내가 먹는 음식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느꼈다. 우리 가족은 육식보다는 채식을 즐기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육식을 아예 안 하는 것은 아예 안 먹는다는 나의 식습관이 동물들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여 더욱 책임 있는 소비를 해야겠다고 느꼈다. 글쓴이는 2번째 채식 하여 누구보다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고 소개했는데, 나도 자식과 동물들과 나의 건강을 위해 완전 채식 생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려해보아야겠다. '자꾸 못생명에게 이로운 음식이 나에게도 이로운 법이다'라는 글쓴이의 마지막 문장을 꼭 기억해야겠다.

고기가 귀했던 농업 사회에서는 복날에 한번씩 개고기, 닭고기 먹는 것이 보신, 보양이었을 수 있다. 하지만 2024년 한국인은 쌀보다 육류 소비량이 더 많다. 매일 고기를 먹다가 복날이라고 더 먹으니까 오�히려 그날만큼은 덜 먹는 게 건강에 좋지 않을까? 새로운 보양식, 지속가능하고 윤리적인 복달임 문화를 원한다. 지구 못생명에게 이로운 음식이 나에게도 이로운 법이다.

가수 밴드 '임반말' 리더

한국에서만 매년 10억명의 상의 닭이 식용으로 도살된다.

자연스러운 것이 꼭 윤리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정글의 법칙을 어기고 사람의 도와 먹물을 지키는 것이 윤리다.



2024 년 7 월 27 일 토요일



힘없이 무너지고 계신 박카스 할머니

학교 친구들과 봉사활동을 하러 수원에 다녀왔다. 가족 하나 없이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께 반찬을 배달해 드리는 봉사활동이다. 이 봉사활동은 나에게 큰 보람을 주는 동시에 깊은 성찰을 하게 한다. 어르신들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놀라곤 한다.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을만한 좁은 공간은 오래된 곰팡이 냄새로 가득하다. 낡고 낡은 가구 몇 개가 전부이고 이 무더운 날 최소한의 냉방 시설조차 없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 작년부터 꾸준히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하루에 약 1시간 정도에 반찬을 배달해드리는데 그중 특히 나의 마음을 많이 차지하는 분이 계시다. 어떤 의미를 반찬에 담아주시고, 싱크대 서랍에서 박카스 용량을 꺼내 손에 쥐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박카스 할머니' 라고 부른다. 낡은 물을 똑똑 두드리고 "반찬 배달 왔어요~"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박카스 할머니가 물을 열어서주시곤 하셨는데 오늘은 평보다 오래 걸렸다. 그렇게 아주한 박카스 할머니의 얼굴에는 전다 같은 피로와 고름이 서려 있었다.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를 하루종일 집안에서 선통기 하나 없이 견디고 계셨던 거다. 할머니의 집은 있으나 마나한 작은 상층으로 겨우 바람이 드는 구조였고, 그마저도 뜨거운 바람만들 어를 불어왔다. 집안은 숨이 턱턱 막힐 만큼 후텁지근했다. 할머니는 우리에게 서글프게 말씀하셨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확 죽을지도 생각했어요. 여름이 오니까 너무 괴롭스러워." 할머니는 우리를 붙잡고 한참을 애가해줬는데 듣는 내 마음이 더욱 말할 수 없이 괴로웠다. 우리는 동사무소에 선릉기를 한 대 부탁드려기로 했다.

오늘도 35도에 육박하는 매우 더운 날이었다. 버스를 타고 집에 도착하니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를 반기고 있었다. 아무리 더운 날에도 집에 들어가 에어컨 앞에 잠시 서있지만 하면 더위는 공체 가난다. 평소 나는 집에서 에어컨을 사용하여 무더위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폭염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이런 속이 계속 어르신들의 상황을 걱정 목격하니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 절감하게 되었다. 그분들께 한없이 미안한 마음이 든다. 기후 변화로 인한 고통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더욱 치명적이다. 기업들의 이윤 추구 활동과 부유층의 풍족한 삶은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한다. 온순은 부유층 사이에서 시원한 나라로 여행을 가는 '클imateien' 이 유행이라는 말도 들었는데 그 피해는 온전히 저소득층에게 전가된다. 정말 슬프다.





조이현 고등학교 1학년

이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정말 어려운 문제라곤 느껴진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보호하는 일이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으면 좋겠다. 할머니께 힘내시라는 말을 그누가 부끄러움 없이 말할 수 있을까? 힘없이 무너지고 제된 박카스 할머니는 우리 모두의 할머니이며 우리 모두의 양심의 자료가 아닐까? 제발 폭염이 할머니를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다. 세상이 할머니께 잔인하게 굴지 않으면 좋겠다.



← 박카스 할머니의 집.



대상

조이현 고등학교 1학년



에 대한 도리를 다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더 적극적으로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옷, 신발, 욕심 내지 않아야지. 흔한 물건 사서 오래오래 써야지. 판매 포장된 물건 사지 않아야지.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의 물건을 선택해야지. 애써다 해야지.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과잉된 2대에 쓰레기를 더 넘기지 않고 멋있게 살 수 있을까? 가슴이 답답하다. 자에게 많이 미안해지는 하루였다.

쓰레기반이 가까워 질수록 약취가 풍겼다.



←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우리집의 노력.
: 우유팩을 모아 주민센터에 갖다 드린다.





조이현 고등학교 1학년

2024 년 8 월 17 일 목요일

날씨 폭염 ☀️🔥

산티아고여, 영원하라



유튜브에서 EBS 환경 다큐멘터리 '날씨의 시대 2부, 경고하는 시대'를 보았다. 기후 변화로 인해 위협의 국기를 이 치명적인 재난을 다루고 있었다. 그 중 내가 가본 스페인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내 심장은 철렁 내려 앉았다.

지난 1월 학교 친구를 10명과 함께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체험 학습을 다녀왔다. 여행사나 어른들의 도움을 거의 받지 않고 우리끼리 모든 것을 기획한 야심찬 프로젝트였다. 우리는 사리아에서 출발하여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100km를 완주하는 데 성공했다. 그 여정은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이었다. 아직까지 모든 장면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벅박한 숲과 푸른 들판이 끝도 없이 펼쳐진 대자연의 길을 걷는 내내 나의 가슴은 벅찬 감동으로 요동쳤다. 자연이 나에게 선사하는 자유와 평화의 감정을 잊을 수 없다. 들장미 노란 들꽃들과 찬란히 피는 천사꽃에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과 우정을 나누며 더욱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을 느꼈다. 윤이 좋아 걷는 내세 날 짜도 최상이었다. 17살의 나에게 따뜻한 이튿날 1월의 스페인은 경이로운 그 자체였다. 스페인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다짐했다.

'언젠가는 꼭 산티아고 순례길 800km 전 구간을 걸어볼 거야!'

그러나 요즘은 다큐멘터리는 나에게 풍어지 개미처럼 차갑게 충격을 주는 것 같았다. 다큐멘터리 속 순례자들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배낭으로 폭풍 속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인 것 같았다. 그런데 그것 이 단순한 그날의 날씨 때문이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비극이라는 것이다. 기후 변화가 산티아고 순례길의 아름다움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은 이처 하지 못했다. 훗날 내가 다시 찾은 순례길이 내가 아는 모습이라 될 수도 있다는 것은 두려움을 느꼈다.



나를 포함한 인류는 지금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고 있는 걸까? 도를 강릉속 선생님이 인간이 금을 쥐고 똥을 사고 있다고 해인 말씀이 생각 난다. 인류가 처한 위기의 민낯을 짚어 할 용기가 우리에게 과연 있는가? 자연이 우리를 보듬려고 사계사에게 보내는 경고를 언제까지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상당한 걸리에 그 누가 책임을 지려고 할까?

아름다운 산티아고 순례길은 대체 불가능한 인류의 보물이다. 지금 나는 그 보물이 쉽게 파괴

될까? 라고 믿고 싶다. 순례길의 기적을 체험하려 언젠가 더 많은 친구들과 떠날 것이다. 내가 타는 비행기가 순례길을 양치기 된다면 여행을 포기할 것이다. 그리고 지구가 건강을 완전히 회복



대상

조이현 고등학교 1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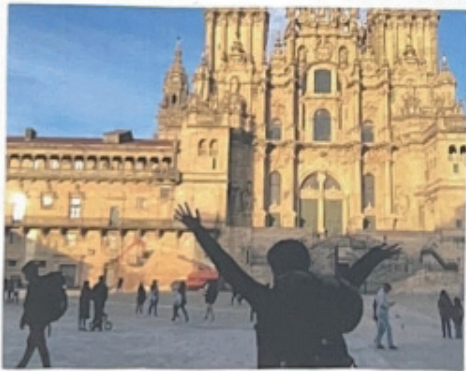
복한 어느날, 내가 본 신비한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스페인과 재회한 것이다. 나의 결망이 아닌 희망을 선택한 것이다.

무엇 산리아인 순례길을 함께 걸었던 친구들과 함께 이 다쿠엔리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한다. 친구들도 아마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생각지 못한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줄 지도 모른다. 다행히 고민을 밀기르 할여름의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졌다. 마음 속으로 조용히 외쳐 본다.

내 친구 산리아고여. 영원하라!



← 파란 하늘과 푸르른 잔디.
맑은 공기 덕분에 승수는 기분 좋았다.



← 100km 완주 후 대성당 앞에서.

